

믿음의 사람들 Ⅷ.

믿음은 신념이 아닌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서 강화됩니다

1.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현대인성경)

(1) 믿음의 정의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라 말한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 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믿음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정의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가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역사, 이것의 증거는 놀랍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

신앙의 목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다. 즉,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같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기도문’ 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다. 다시말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은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땅에서 구하는 나의 바램이 하늘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3) 균형과 불균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 ‘하늘과 땅’ 이 같았다. 서로를 비추어 낼 수 있었다. 하늘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온전함을 말한다. 태초의 땅은 하늘처럼 온전한 곳이었다. 균형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균형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 그래서 땅은 고통의 소산인 ‘가시덤불과 엉겅퀴’ 를 쏟아내는 곳이 되었다.

[에베소서 1:10]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늘과 땅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춘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위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균형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하나되게 하셨다.

(4) 믿음의 동기화

* 동기화 [synchronization, 同期化] - 독립된 2개 이상의 주기적인 사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 제어함으로써 일정한 위상 관계(位相關係)를 지속시키는 일.

컴퓨터 용어에 동기화가 있다. 서로 다른 두 기기를 ‘하나’ 로 만드는 작업이다. 즉, 서로 같게 만드는 작업이다. 믿음이란 바로 그와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신념과 다르다. 믿음은 불균형을 이루었던 하늘과 땅을 동기화 시킨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을 말한다. 그 예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삶의 모든 균형들이 깨진 사람들이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다. 다시 균형을 찾은 것이다.

하늘과 땅의 동기화는 내 부족한 영역을 동기화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가동 될 때, 하늘과 땅이 같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2.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6-10]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경탄하신다. 예수님을 놀랍게 한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큰 믿음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1) 하늘과 땅이 동기화 되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큰 믿음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백부장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8절이 그 답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태도이다. 그 순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뜻이 하늘의 뜻과 동기화가 되는 순간이다.

온전한 하늘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땅을 동기화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백부장은 권세있는 자였다. 권위를 아는 자였다. 9절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보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내가 그대로 믿고 있다고 자신의 믿음의 출처를 예수님께 설명한다.

(2) 백부장의 겸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겸손한 자이다. 그 겸손함이 예수를 믿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믿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백부장은 하늘의 권위를 알고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겸손은 권위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땅이 동기화 될 수 있는 내면의 정령을 이룬 사람을 찾고 계신다. 백부장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겸손은 질서있게 잘 정돈된 백부장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3)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동기화 된 믿음

[마태복음 8: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놀라운 선포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백부장의 바람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히브리서 11:1 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4) 예수님의 성품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동기화 되는 장소이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기 신념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다. 그 하나됨은 예수님의 성품(마음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팔복’ 이다.

백부장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래서 겸손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건 강했다. 뒤틀리거나 꼬여있지 않았다. 겸손하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성찰’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 바람이 결국 믿음이 되었다. 믿음은 실제화가 되어,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되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현실이 된 것이다.

(5) 내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소원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소원을 바라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6) 연약하고 부족한 영역이 있는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간이, 나의 믿음이 활성화 되며 강해지는 곳을 명심하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곳에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처럼 고백하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7) 연약하고 부족한 영역이 있는가? 그곳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자. 그곳을 온전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부족한 내면에서 날마다 체험하자. 교만과 자만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 말자.

예수님의 성품을 예배하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과, 그 분의 사랑을, 더 깊이 나의 내면의 불균형을 이룬 곳에 적용하자. 그 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되는 동기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아멘.